

韓稚振氏의 『人性의 本質論』을 읽고 (一)

朴明茁

封建的 桂棹에서 脫出하라고 高喊치다가 巴里 校外에서 悶死한 『루쏘』가 『嘲弄은 惡魔가 즐겨서 쓰는 武器니라』하였다. 雄大 輝邊한 構想과 筆致가 巖絶한 韓稚振의 力作하신 論文에 對하여 無識을 有識인 체하고 東問西答的인 脫線的 語難을 한다면 識者는 우슬 일이다. 그러나 韓氏가임이 紹介하신 英國 『릿셀』氏 說에 한 개의 樹木도 觀者의 主觀的 態度에 차라서 달으다라고 한 것을 暫時 使用하여서 遠讚한 者의 主觀的 疑問反對 等を 羅列하여 봄도 韓氏는 實容하시리라. 그러한 意味 下에서 不可當한 이 글을 쓰는 筆者가 惡魔가 될지 말지는 아즉 X다.

◇-◇

一九三〇년도 將次다. 盡하라는 이 새 하늘서 한卷의 聖書가 내려와서 거기에는 『이 地球는 全 宇宙의 中心이고 日, 明, 星, 辰은 地球를 爲하여 巡選를 하고 새와 꽃들은 그 가운데서 姘媚를 다투고 노래하고 이 모든 것은 人間을 爲하여 된 것이니 人間은 그 支配者로서 내엿나니 모든 것은 人間에서 始作되어 人間은 宇宙의 出發點이고 歸着點이니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聖書를 못보는 까막눈 大衆은 그 말을 듣고 하늘님이 너머 큰 것을 人間에 주신 까닭에 거기에 눌러 죽을 入字는 우리들만이 가졌노라고 眞言 할 것이다.

◇-◇

韓氏의 所論인 人性本質論 머리말에 모든 研究는 人間에서 始作하지 안흐면 안된다고 또한 사람은 自然現象보담 더 密接한 社會現象을 重要視하게 되었다. 이에 社會主義란 것을 發明하여 人間의 關係를 調査하고 整理하게 되었다. 그러나 社會의 諸 問題는 解決하라고 할 수록 더욱 複雜하여지는 것을 覺悟하였다. 사람이 解決하라는 問題는 사람 맞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本質에서 올어나는 것을 發見하였다. 이럼으로 萬 事物의 根本이 되

는 各自의 本質을 究明함으로써 其他의 諸問題을 解決 할 수 잇슬 것을 알
엇스니 이는 比較的 新發明이다. 이로부터 사람은 宇宙의 出發點이고 到着點
이다』라고 하였다.